‘상구보리’ 후엔 중생 속으로…



新 불교사자성어

⑰ 입전수수(入廛垂手)

‘입전수수(入廛垂手)’는 ‘번잡한 시장(市場) 속으로 들어가서 손을 내밀다’는 뜻이다.

중국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로서, 더 쉽게 풀이하면 ‘중생이 사는 도심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이다.

‘전(廛)’은 시장을 가리킨다.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십우도(十牛圖)’의 마지막 열 번째 그림의 제목, 즉 화제(畫題)이다.

‘십우도(十牛圖)’란 선불교에서 수행과정, 오도과정을 그림, 회화로 나타낸 책이다.

10장(10폭)으로 된 ‘소를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소는 탐 · 진 · 치(貪瞋痴)에 목숨을 심각하게 걸고 있는 인간, 즉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상징한다.

‘소(마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하여 ‘찾을 심(尋)’자를 써서 ‘심우도(尋牛圖)’라고도 하는데, 선미술(zen art)의 극치, 선화(禪畵)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다. 사찰에 가면 법당 벽화에도 많이 그려져 있다.

심우도(십우도)는 선수행의 시작에서부터, 수행 단계, 그리고 목적지인 깨달음을 이룬 이후까지 과정을 10장의 그림으로 묘사한 것인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이므로 이 그림만 잘 이해하면 깨달을 수 있다.

선 수행, 참선수행이란 탐욕, 증오, 어리석음의 삼독, 이성에 대한 욕망, 명예, 돈, 출세 등의 번뇌 망상의 늪과 풀밭을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집착,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마음의 실체를 찾는 것이다. 불성, 청정한 마음, 진여 본심을 찾는 것이 선수행이다.

수덕사에 가면 ‘심우당(尋牛堂)’이라는 건물이 있다. 선방인데, 심우당을 선방 건물 명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만해 한용운은 성북동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심우장(尋牛莊)’이라고 했다. 역시 ‘소를 찾는 곳’이라는 뜻, 마음을 닦는다는 뜻이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불교에서 ‘소(牛)’는 어리석음, 우치(愚痴)를 가리킨다.

심우도에서 ‘우(牛)’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아마 하루 종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미련스럽게 일만 하기 때문이다.

‘입전수수’ 십우도 열 번째 화제

수행의 궁극은 중생 교화

오늘날 소는 경운기 덕분에 밭을 가는 일을 하지 않지만, 30년 전만해도 봄이 되면 하루 종일 밭을 갈았다. 소가 없는 집은 남의 소를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서 갈았다.

소의 눈을 쳐다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밭을 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어쩌다 소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되었을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쩌다 중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돈만 벌다가 죽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불교에서는 참선한다고 시주의 은혜를 입고서도 수행을 잘못해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소가 된다고 한다. 소가 되어서 시주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다.

‘십우도(심우도)’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는 선 수행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牛)를 찾는 과정으로 묘사한 선화(禪畵)인데, 곽암(廓庵) 선사의 심우도와 보명(普明)의 심우도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보명선사의 심우도 보다는 곽암선사의 심우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심우도는 오도(悟道)의 세계를 절제된 언어 문자와 그림(회화)을 통하여 표현한 최고의 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장면, 즉 결론 부분이 ‘입전수수(入廛垂手)’이다.

선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산에 있지 말고 도심 속, 지저분하고 복잡다단한 시장 속, 중생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영가와 육조에게 일척안 내준 뜻은?

〈一隻眼, 한 쪽 눈〉



격절록 강설

⑰ 제 5칙 영가요석(永嘉遶錫) 2

[評唱 2]

永嘉既至曹溪 見六祖坐次 持錫遶繩牀三币 振錫一下 卓然而立 六祖云 “夫沙門具三千威儀 八萬細行 大德從何方來生大我慢” 永嘉也好便道 “生死事大 無常迅速” 六祖本要抛箇鉤釣永嘉 却倒被永嘉釣將去. 兩家只管打葛藤 一對一問千古萬古 悉皆如此. 末後六祖道 “如是如是” 永嘉便行. 祖云 “少留一宿” 故號為一宿覺. 名玄覺 號真覺.

영가(永嘉)가 조계에 이르러 육조(六祖)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석장(錫)을 들고 승상(繩牀)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 바로 우뚝 섰다.

6조가 말했다.

“무릇 사문은 삼천 가지 위의와 팔만 가지 세행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대아만을 내는가?”

영가가 바로 말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합니다.”

육조는 본래 갈고리 하나를 던져 영가를 낚으려 했던 것인데, 도리어 영가의 갈고리에 걸려들었다.

두 대사는 단지 말(葛藤)만 했을 뿐인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한 것(一對一問)이 천고만고에 모두 다 이와 같았다.

끝에 가서 육조가 “그렇지, 그렇지!”라고 하자 영가가 바로 가버렸는데, 육조가 “하룻밤 묵고가라”고 했기 때문에 일숙각(一宿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법명은 현각(玄覺)이고, 호(號)는 진각(真覺)이다.

雪竇拈古有大手脚 更不引問答 直引他初見六祖語 雪竇拈弄 永嘉道 “生死事大無常迅速” 且得沒交涉. 雪竇教永嘉下喝免見後人指注. 且道 明什麼邊事. 這一喝似箇什麼. 似置一寶珠向面前 若是有錢人便買將去 當時屬你也.

설두는 염고(拈古)에 대단한 솜씨가 있었기에 다시 문답을 인용하지 않고 처음에 육조가 한 말을 보고 바로 끌어다가 설두가 염롱(拈弄)한 것이지, 영가가 말하기를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합니다”고 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설두가 만약 영가로 하여금 “할(喝)!”을 하게 하였더라면 뒷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석과 주해를 다는 것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말해보라! 어떤 경계의 일(什麼邊事)을 밝힌 것인가? 이 일할(一喝)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하나의 보배 구슬(一寶珠)을 면전에 던져둔 것과 같으니, 만약 어떤 돈 있는 이(有錢人)가 바로 사간다면 그때 그에게 부촉할 것이다.

宗師家拈古 有出羣處. 却再舉六祖道等遶繩牀三币 振錫一下 卓然而立 好向他道 未到曹溪 已與你三十棒了也. 雪竇前頭與永嘉出一隻眼 這裏與六祖出一隻眼. 且道 雪竇意作麼生.

종사들의 염고에는 뭇사람들을 뛰어넘는 곳(出羣處)이 있다. 그래서 재차 도리어 승상을 세 번 돌고 석장을 한 번 떨치고 우뚝 섰을 때 육조가 한 말을 거론하고, (육조를 대신해서) 그(영가)에게 말하기를 “조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그대에게 삼십 방을 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설두는 앞에서는 영가에게 일척안(一隻眼, 한 쪽 눈)을 내주었고, 여기서는 6조에게 일척안을 내주었다.

자, 말해보라! 설두의 뜻이 무엇인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⑰ 믿음 편 17

불심으로 나라 지키는 이유

학창시절 선배가 후배의 기강을 잡을 목적으로 종종 하는 말이 있었다. 선배는 하느님이나 부처님과 동기동창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을 반복해서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선배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들 일상에서도 복종의 논리적 근거를 교주에서 찾고 있으니, 종교의 영향력이 크긴 크다는 생각이다.

중국불교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북조(北朝)시대에 유행한 왕즉불(王卽佛), 왕이 곧 붓다라는 신앙이다. 이는 왕이 곧 붓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임금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왕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불상이나 불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다.

불교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신앙(護國信仰)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였다. 호국의 주체인 임금과 붓다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임금을 지키는 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호국신앙은 나라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전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종교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호국신앙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신라 지역에 호국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북조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원광(圓光)은 화랑의 지도이념으로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제시하여 국가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자장(慈藏)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황룡사 9층목탑을 지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

호국신앙의 모습은 백고좌회(百高座會)와 팔관회(八關會)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고좌회는 백 명의 고승을 초청해 국가의 액운을 물리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이며, 팔관회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의 명복을 비는 법회였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17년에 걸쳐서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호국신앙의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임진왜란 때 휴정과 유정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들은 왜군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한용운, 백용성 등의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일도 빼놓을 수 없는 호국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호국신앙을 이야기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킨다(護國)’고 할 때, ‘나라’에는 내가 살고 있는 조국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땅(佛國土)이자 정토(淨土)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곳을 더럽힌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고좌회와 팔관회, 고려대장경 제작,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활동 등은 모두 정토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었다.

호국신앙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곧 정토라는 현실정토(現實淨土)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토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거나, 아주 먼 미래에 오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을 청정하게 가꾸고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국의 호국신앙이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북조시대의 정치적 호국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답사를 다니다 보면 호국사찰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량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 임진왜란 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다. 호국신앙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왔다.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거나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전국의 사찰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도가 봉행된다. 잊지 말기로 하자.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가 정토라는 것을, 그리고 정토는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땅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급여(개인적으로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해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2019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종교인
- 2018년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 동영상 강의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전화 : 051-996-0308 박성욱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지혜인(제6기) 명상지도사

자격증과정(민간자격사등록)

- **2급연수** : **6월1일(토),8일(토)** 10~17시(12시간) +자가학습(부교재/DVD)18시간(총30시간)
- **1급연수** : **6월15일(토), 22일~23일(토/일)**합숙워크숍(현장18시간)+자가학습부교재등12시간(총30시간)

■ **담당교수** : **손기원** / 철학박사, 인문학 명강사
■ **장 소** : **사다헌 강남교육장**(교육장 및 명상실 완비)
■ **참가대상** : 전통명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명상지도사가 되어 명상을 지도하고자 하는 분
■ **모집인원** : 15명 내외(서류전형으로 합격자 선발)

※ 제29기 여름 청소년 지혜인 집중력 캠프 예약 접수중

☎ 문의 : 031-283-8287, 010-3734-5418

지혜경영연구소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 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644-1102